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1장(다 찬양하여라)
※ 교 독 문10(시편16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2장(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배기도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해 같이 빛나리”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태복음 18:21-22..... 류종란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기 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274장(나 행한 것 죄뿐이니).....
봉 헌 (1 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8:0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작정방기도회와 함께 드립니다. * 오후 8:00 * 종합교육실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호세아서강해	금요기도회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김애경집사			작정방기도회
본 문 / 베드로전서 2:1-3			오후 8시
말 씀 / 최세열목사		종합교육실	
*베드로목회7프레임 /			
5.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과정목회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음 주 기 도
	현금위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1부 노재의집사
	식당봉사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2부 박홍만장로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1부 말 은 이
	헌신찬양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2부 방옥남권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신혜영권사	
	금주 1 구역	다음주 2 구역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 마태복음 18:21-22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것 보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용서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임금은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 종은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들을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붙잡아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1. 용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종은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로 내게 잘못된 동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 용서는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먼저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요3:16)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4:32)고 말합니다. 또한 죄 지은 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우니 용서하고 위로하라(고후2:5-7)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엇보다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듯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3.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용서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죄와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 자신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에게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신앙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본래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의 위력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해도 먼저 용서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현절 일곱째 주(2월 23일)

제 9 과 집사의 도(마태복음 23:1-12절)

(함께 읽을 말씀 : 여호수아24장 14-18, 로마서 12장 9-11절)

말씀묵상

1.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쁜 시종들이 나와 꽃다발을 안겨 주며 맞이했습니다. 집사는 흡족한 마음으로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새로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직접 꽃다발을 들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까. 알아보니 그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하도 드문 일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는 여기서도 사람 차별하는가 싶어 은근히 부아가 났지만, 참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기에 한 명 올까 말까하는 사람이 오니 예수님이 직접 영접한다고 하면서 천국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접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진짜 왔구나!' 하시며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절하실 만큼 천국에 희귀한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대사제였단지요?

2. 너무 도가 지나친 유머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라면 그 실제 상황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허명에 매여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시대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행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명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껍데기에 집착하여 알짱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대사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서는 사람 아닙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입는 예복은 그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자기 영광을 과시하는 옷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겸손의 예를 교만의 허례로 구축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이름을 듣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도 듣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허명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허위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아버지'는 로마인들이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지도자'는 이 세상이 칭송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갖지 말라 하셨습니다. 허명에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명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우리가 따라야 할 이름은 '섬기는 이'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름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만 '섬기는 이'로 오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이'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집사(διακονος, 디아코노스)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
2. 3.1절 기념 에스더기도회를 다음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드립니다. 여신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정밤기도회가 24일(월)부터 8일(금)까지 오후8시에 종합교육실에서 있습니다.
* 주제 :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4. 청소년부와 청년회의 동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용훈 김영숙 이종열 박현순 김연학 김장숙 최세열 조성순 윤종원 서영자 안해숙 김영란B 허웅 김순님 김애자 심복례 최승만 함경숙 박치국 이영란 박기환 한옥자 김인순 이현옥 지국남 박희순 방옥남 박경자 김홍영
- 감사헌금 : 이용훈 김영숙 김병진 박세일 이경훈 박홍만 정정희 양석임 김지환 엄현환 김옥길 여순애 노재의 김영란 손주완 박윤희 박치국 이영란 송순옥 김애자 김동현 양희임 최세열 조성순 무명3 (심방) 이강영 최영랑 (일전번제)김동현 (선교)이영란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기환 한옥자 방옥남 박희순 박치국 이영란 김옥길 여순애 허웅 김순임 함경숙 김애자 윤종원 김선자 안해숙 마리아회
- 비전씨앗 : 배영인 황은상 안채빈 박주한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귀래	5	10,000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7	11,000	80	박정미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4	18,000	50	이경희	8	김순님	오복실	김장숙	9	33,000	40	허 웅
3	이춘호	함경숙	박경자	4	22,000	300	이유자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3	17,000	100	김인순
4	김기희	최경선	임애경	5	15,000	38	김기희	10	장영분	노순영	김영란	4	18,000	50	
5	이문순	원혜경	최영랑	7	27,000		윤종원	계				55	191,000	873	
6	류종란	김애자	안해숙	4	20,000	215	정순님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헤세드, 사랑의 은혜, 용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고용한 일꾼 중 한 사람이 값비싼 포도주 통을 엮질러서 포도주를 다 쏟은 것을 알고 그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은 당신 편에 있소.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소.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헤세드(Hesed, 사랑과 은혜)에 따라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오.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시면 좋겠소.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요해 지실 것이오. 그래서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헤세드로 인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소"(해롤드 쿠스너, The Lord is my shepherd, p.160-161) 그는 재판관의 권고를 따랐다고 합니다.

용서의 힘 - 치유

어느 병이 깊게 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종다는 약은 다 먹어 보았고 용하다는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숨을 거둘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심방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 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자기가 미워하며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여 주어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후 한 주간동안 이런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동안에 무려 5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나니 눈물이 펄펄 쏟아져 흘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지 한 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8호 2014.2.13

2월 교회 행사 안내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리아회 / 2월 16일
2.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 2월 14일 - 15일
3. 청년회 동계수련회 - 2월 21일 - 22일
4. 작정밤기도회 - 2월 24일 -28일 오후8시 / 종합교육실
5. 해든솔선교활동 - 2월 15일 오전 9시
6. 안수집사모임 - 2월 9일 오후1시 / 당회실
7. 권사회기도회 - 2월 16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2014년 1차 작정밤기도회

2014년 제1차 작정밤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잠자던 영성을 깨우고, 기도의 참 의미를 밝히는 기도회에 모든 교우들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1. 일정 : 2월 24일(월) - 28일(금)
2. 시간 : 저녁 8시(이 기간 중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3. 장소 : 교회 1층 종합교육실
4. 주제 :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월 :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 마태복음 7:7-8
화 : 기도를 왜 하는가? / 요한복음 14:12-14
수 :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 누가복음 11:10-13
목 :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 야고보서 1:5-8
금 : 기도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 마태복음 26:36-40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